

제 68 강

생명, 빛, 사랑

■ 성경본문 요한일서 1:1-5:21, 요한이서 1:1-13, 요한삼서 1:1-15 ■

프렐류드(Prelude)



소아시아 일곱 교회

오늘 우리는 사랑의 찬가로 알려진 요한서신과 마주합니다. 요한 I, II, III서에 등장하는 언어와 표현은 요한복음과 거의 동일하다 하여 요한 I, II, III서의 저자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 I, II, III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아니라는 해석이 근대 학계의 해석입니다. 특히 '다드'(C. H. Dodd)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세운 '요한 공동체' 안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집필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비록 요한복음의 용어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요한 서신은 당시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교인들에게는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간구하는 편지입니다.

I. 주요 내용

1. 사랑이신 하나님(요한일서 1:1-5:12)
2. 미혹하는 자에 대한 경고(요한이서 1: 7-10)
3. 디오드레베를 삼갈 것(요한삼서 1:5-10)

〈연대표〉

요한서신 기록
(주후 90년 경)

II. 시대적 배경

주후 90년경 소아시아 교회들, 특히 에베소 교회는 큰 부흥일로 있었습니
다. 그러나 이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현론자’(假現論者-Docetist)로 알려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신자들을
미혹하고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요이 7절).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
으시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는 별개의
존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적그리스도’로 보고, 믿는 자들은 유
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의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요삼 9절)가 악한
말로 비방하고 신자들을 밖으로 추방하고 있었습니다.

장로 요한은 이 둘을 경계하고 교회를 사랑과 빛의 공동체로 굳게 세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III. 말씀과 해석

1. 사랑이신 하나님(요한일서 1:1-5:12)

생명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인간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요일 1-2장). 그리고 생명은 곧 빛이셨습니다. 이 생명은 자기 몸을 화목제물(요일 2:2)로 드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였습니다.

“사랑의 찬가”로 알려진 요한일서 4장 7절-12절은 이 사랑을

- (1) 하나님 아버지로,
- (2)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 (3)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성령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사랑 안에서 ‘일체’(一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사람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2. 미혹하는 자에 대한 경고(요한이서 1:7-11)

교회와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는 ‘가현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이 타락하고 찌어진 인간의 육을 입을 수 있는가는 질문으로 신자들을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꿈에서 스쳐 지나가는 환상이었다며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이때 장로 요한은 강한 소리로 이들이 “...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3. 디오드레베를 삼갈 것(요한삼서 1:9-11)

장로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와 교인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칭찬과 격려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장로 요한은 가이오를 두고 “사랑하는 자여”라는 호칭을 네 번이나 쓰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요삼 1:1, 2, 5, 11). 그리고 이 교회는 일정한 거처도 없이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인색함 없이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장로 요한을 비방하고, 나그네 대접에는 인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신자들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요삼 1:9-11). 이 소식을 들은 장로 요한은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는 격한 말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요삼 1:10).

IV. 성찰과 나눔

1. 요한서신의 중심 주제는 생명, 빛,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제자-사도 요한이 세운 공동체에서 성장한 많은 후예 중에 특히 장로 요한으로 불리는 요한 서신 저자는 특출한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장로 요한이 쓴 요한서신은 생명, 빛, 사랑이라는 용어를 통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생명, 빛, 사랑 그 중의 제일은 사랑입니다. 희랍어는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남녀 간에 맺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에로스’(eros)라고 불렀습니다. 둘째는 ‘필리아’(philia)입니다. 부모의 자식사랑, 형제간의 사랑을 지칭합니다. 셋째는 ‘아가페’(agape)입니다. 절대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3.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은 ‘사랑의 찬가’로 알려진 유명한 고백이고 서술이며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랑의 신학’이 있습니다.

(1)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요일 4:7). - 영원한 것, 희생적인 것(요일 4:10, 11). 하나님의 사랑 - 아가페만이 영원하고 모든 사랑의 근원입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요일 4:9) 안에서 '체화'(體化)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본체'(本體)였으며 빛과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3)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요일 4:11). 인간들의 에로스(eros) 사랑과 필리아(philia) 사랑을 통해 아가페(Agape) 사랑은 나타나야 합니다.

(4) 인간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증언하는 통로입니다(요일 4:12). 그러므로 인간의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은 본질상 변하고 불완전하고 배신적이지만, 그것이 아가페 사랑을 담을 때 인간 사랑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 소박한 그러나 인간 삶의 기본을 이루는 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5) 요한 I, II, III서는 생명과 빛의 근원인 사랑, 하나님 사랑을 증언하는 사랑의 찬가입니다.